

육아정책 소식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10월 27일에 발표하였다. 본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 경쟁, 특정 유치원 쏠림 등 원아 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면서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아 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과열 경쟁 등 원아 모집 폐해가 완화되어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시·도 교육감들은 10월 21일 교육감협의회(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의 의무로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16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액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조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단기적인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및 불용 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였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학부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 교육청(대구, 울산, 경북 제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을 지적하였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발점의 평등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교육·보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어느 기관에서 교육·보육을 받더라도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역할을 다 하여, 앞으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우수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 및 부모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3일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센터와 우수센터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최우수 센터는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시도와 시군구 센터 중 각각 평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도 서울시 센터, 충북 센터의 2개 시·도 센터와 경기 성남시 센터 등 8개의 시군구 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센터인 부산시 센터는 부산시 내의 시군구 센터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부모가 공평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울 노원구 센터는 지역 내 ‘육아지원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와 정보, 인적자원을 체계화하여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부모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부모상담·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 재편됨에 따라 각 센터별로 지자체의 지원 하에 특색사업으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해왔으나,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부모교육 사업은 센터별,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모든 부모가 부모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부모교육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도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도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